

「先進 科学技術로의 跳躍의 해」

崔鍾院 과학기술처장관은 8일 금년을 「 과학기술로의 跳躍의 해」로 정하고 과학기술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綜合科学技術審議會를 통해 조직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朴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崔장관은 올해의 기본시책으로 "획기적 과학기술 발전시책정립" "고급과학기술두뇌의 국가적 양성", "중화학공업기술의 自力基盤 확립", 전국민의 科学化운동 전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崔장관은 人力개발의 추진을 위한 韓國科学院과 理工系대학원의 확충강화, 해외유학및 훈련의 확대, 해외두뇌 유치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 核燃料의 조기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준공된 年産 10 t규모의 核燃料加工시험공장을 82년까지는 1백 t규모의 量産공장으로 개조하고 核燃料轉換공장도 내년까지 건설하겠으며 原子炉 制御裝置등 원자력 발전소용 機資材를 국산화 하겠다고 보고했다.